

## 타인의 입을 통해 만들어진 '평판' 벗어날 수 없다면 이용하라

###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

존 휘트필드 지음

"품성이 나쁘려면 평판은 그들과 같은 것이다. 나무는 실체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나무를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질 수 있듯, 평판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면 대개는 뒷담화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비평'이라는 뜻의 평판. 누군가에 대한, 또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바로 평판이다.

그렇다면 인간들 사이에서 평판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진화생물학자인 존 휘트필드는 그의 저서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를 통해 평판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평판은 분명 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만들어진 내 이미지를 결정해 나를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술꾼,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저자는 소문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평판이 대상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관계에 있어 친분 쌓기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평판이 대상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거르고 제시하면서 그 정보가 가치있는 것처럼 포장해 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소문이나 뒷담화를 조작해 타인의 평판을 높이거나 깎아 내리는 데 그 상대가 친구나, 경쟁자나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고 조작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평판의 이런 습성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평판의 습성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제3자는 이런 평판의 습성에 휘둘러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 제공자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평판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침팬지도 집단 내에서 거짓말을 하며 정보를 조작해 다른 개체의 행동 등에 관련된 정보로 관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때문에 책에서는 이런 평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평판을 쌓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을 상대에게 소개시켜 주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권한다.

진화생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을 넘나들며 평판의 기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했다는 결과치고는 단순하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라는 조언이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72년 찰스 다윈은 '인간의 유래'에서 이렇게 썼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과 그 자라는 부족 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이점을 누린다. (...)부족 전체의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면 타 부족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도덕성은 140년 전에도 인간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꼽혔다.

〈생각연구소·1만6000원〉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매물도로 간 세 남자, 그곳에서 세상을 보다

###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최화성 지음

세 남자와 한 여자가 여행을 떠났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 찾아가는 곳은 매물도.

세 남자는 지리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시인 박남준과 이원규, 그리고 거문도에 살면서 생계형 낚시를 하고 글을 쓰는 소설가 한창훈이다. 그들과 동행한 한 여자는 '제주도 비밀 코스 여행', '세계질, 전라도' 등의 책을 쓴 최화성.

글을 쓰는 남자들은 글을 쓰지 않는 대신, 꽃과 나무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리하고, 술을 마셨다. 그 기록은 여자가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매물도, 섬놀이'라는 책자로 사진과 함께 묶여왔다.

'남준씨', '원규형', '미스터 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들의 이야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은 책을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고, 때론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3박 4일 짧은 기간, 다른 섬과 그곳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풍경, 또 특별한 사연보다는 어느 시골 마을에나 있는 사연을 담고 있는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지만 책을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물도에서 시작했지만 그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리산과 거문도의 자연과 사람 이야기, 풍물의 추억, 인도양까지 날라간다.

글 쓰는 사람들과의 동행 과정을 글로 쓴다는 게 부담이었을 게 분명했을 저자 덕에 책을 읽고 나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 든다.

〈북노마드·1만38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우표는 한 시대를 담아내는 거대한 이미지

### '우표로 그려낸 한국현대사'

나이토 요스케 지음

누구에게나 인생 한 페이지에는 우표 한두 장은 붙어 있을 것이다. 우편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에 반갑게 뛰어나가 받아든 편지 곁에는 붙은 우표. 첫사랑의 간절한 답장이, 군대 간 아들의 애달픈 소식, 그렇게 우표와 함께 우리에게 왔다.

우표는 한 시대를 담아내는 거대한 이미지다. 일본인 우표수집가 나이토 요스케는 신간 '우표로 그려낸 한국현대사'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2008년 이명박 정권 수립까지 60여 년의 한국현대사를 우표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념 우표'에는 역사의 변화와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남한 최초의 우표는 일본강점기 때 쓰던 우표에 '조선 우표'라는 글자만 찍은 것이



다. 모든 게 부족해 새로운 우표를 만들지 못했지만 일본의 것을 그대로 쓸 수도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말해준다.

책은 시대의 변천사에 따른 우표에 담긴 뒷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책에 곁들여진 우표 이미지들이

이 진짜 우표처럼 작고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당신이 우표수집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우표 속에 그려진 낯선 이국의 풍경이나 외국 대통령의 얼굴을 들여다봤다면, 이 책은 잔잔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다.

또 자신도 모르게 "이 우표는 옛날에 봤다"며 사랑을 열어 빛바랜 편지 봉투를 뒤적이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울·3만원〉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당연한 건 없다, 상식에 반기를 들다

## 한국문학의 과감하고 신선한 흐름

### '상식과 싸운 사람들'

이재광 지음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거에 대해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건 언제나 옳은 걸까.

언론인 출신 이재광씨가 펴낸 '상식과 싸운 사람들-일상의 혁명'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지



만, 그들의 삶은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책은 남성 중심 위주의 사회에 대항하다 결국은 희생된 우리나라 최초 여류 화가 나혜석, 자유의 시인 김수영, 임진왜란 중 포로로 끌려갔다가 미개한 일본의 문명을 열어준 조선의 선비 강항, 여성과 외모에 대한 편견을 딛고 '샘골의 기적'을 일군 일제 치하 젊은 교육자 최용신 등 모두 10명을 다루고 있다. 〈지식갤러리·1만45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웹진문지문학상 작품집'

김태용 외 지음

문화와 지성사가 제정한 웹진 문지문학상은 한국 문학 최초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심사 과정이 공개되고 결과가 발표되는 작품상이다. 무엇보다도 등단 7년차 이하 신예들의 소설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터라 젊은 작가들의 과감한 실험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던져준다.

제2회 웹진문지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왔다. '웹진 문지' 이달의 소설에 선정돼 후보에 올랐던 작품 중 수작은 김태용의 '머리 없이 머리 없이'. 한



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국을 찾은 입양아 '스미스-영복'의 이야기를 얹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밖에 김사과의 '더 나쁜 쪽으로', 김미월의 '질문들', 황정은의 '빠도독', 김이철의 '부고', 윤고은의 '요리사의 손톱', 손보미의 '육인용 식탁' 등 후보작 10편도 실렸다. 각 작품마다 작가 노트, 선정의 말, 작가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인류 최초의 것...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나

### '최초의 것'

후베르트 필저 지음

인류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들은 어떤 것일까.

'타이스 고고학 저술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고고학자 후베르트 필저가 쓴 '최초의 것'을 보면 그 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다. 저자는 18가지 '인류 최초의 것'에 대해 고고학, 역사, 과학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명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직접보행은 어떻게 시작됐 것일까에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간다. 700만년전 인류 최초의 조상이 현재 독일 면적만한 거대한 호숫가에서 직접보행을 배웠고,



이 혁신은 우리의 눈길을 위로 향하게 해주었고,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양한 '최초'들이 탄생하게 됐다.

책은 최초의 옷과 집과 언어의 형태는 어떠한지, 최초의 살인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최초의 수학자는 어떻게 원리를 깨달았는지 들려준다. 또 최초의 예술가, 최초의 맥주, 최초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한다.

저자는 최초의 것들이 발생시킨 상황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인간적 특성과 진보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지식트라·1만50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신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태형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시대 멘토 17인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원칙을 들은 책. 한비야·헤민스·남·이해인·수녀·김난도·교수·서영은·고은·함민복·환관상·하종강·정진홍·강종우·김용택·이철환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저자의 마지막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였다.

〈좋은생각·1만5000원〉

▲내 안에 시가 가득하다=광주 출신으로 '겨울공화국' 등의 시집을 펴낸 양성우 시인이 펴낸 14번째 시집이다. 투쟁과 자유의지에 관한 시들을 써왔던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는 그리움을 주정서로 한 시들을 써내려갔다. '담장을 주먹으로 때리며 내 이름을 부르며 무지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봄', '아무리 더워도 눈부림처럼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을 그리는 '남포리'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렸다.

〈실천문학사·1만원〉

▲근대를 말하다=이덕일 역사평설=역사 관련 인기 작가로 고대사, 조선사 등을 다루었던 이덕일이 이번에는 한국의 근대를 해부했다. 대한제국의 멸망에서부터 독립운동까지 우리의 아픈 역사 100년을 53가지의 키워드로 들여다본 책은 '광국의 몇가지 풍경', '절망을 넘어서', '식민통치의 구조', '운동의 시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 '민주의 삼부'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역사의 아침·1만6000원〉



▲이브의 발칙한 해외봉사 분투기='제2의 빌 브라이슨'으로 불리는 이브 브라운 웨이의 코믹터치 감동실화.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평화 봉사단원이 되고, 에콰도르로 봉사를 떠나 뉴욕의 싱글녀가 결혼한 후에는 그를 따라 우간다와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봉사를 떠나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알에이치코리아·1만3800원〉

▲탐스 스토리=탐스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신발이지만 단순히 신발만은 아니다. 한결레를 사면 한결레가 기부돼 착한 소비의 대명사가 됐다. 탐스의 CEO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쓴 이 책은 아르헨티나로 휴가 여행을 갔다 신발이 없어 다치고 병에 걸린 아이들이 본 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기부자 아닌, 사업을 통해 아이들을 돕고자 탐스를 설립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성공 신화를 그리고 있다. 〈세종서적·1만2500원〉

▲라가=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 클레지오의 신작으로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작은 섬 라가로 떠난 여행 에세이다. 문학을 통해 세계 여러 문명의 소통과 공존을 모색해온 그의 소설처럼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섬의 대륙, 오세아니아의 비밀과 비극이 공존하는 섬 라가의 모습을 소설, 시, 르포, 역사적 서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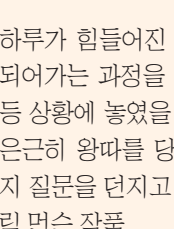
▲버들치랑 달리기했지='아빠는 심심할 때 뭐했어?' 시리즈 첫권으로 일 년 열두달 얼굴이 새까맣도록 자연에서 뛰노는 잠세 사촌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잠세 사촌사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으로 샌다. 오늘은 버들치와 시합을 하는 버들치 달리기.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 〈웅진주니어·1만1000원〉

▲나의 첫 별자리 책=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와 그에 얽힌 신화를 비롯해 밤하늘에서 펼쳐지는 우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일본 작가 무라타 히로코와 테즈카 아케미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다산기획·1만2000원〉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이탈리아 작가 린다 그리바의 작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입양'이라는 주제를 키워온 올리비아 공주를 통해 그려냈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양부모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이즐북스·1만5000원〉



자신을 낳은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기대하며 다양한 꿈을 꾸는 올리비아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표현돼 있다.

〈이름없는 사람들·1만2000원〉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나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동네 최고의 야구팀 선수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던 동네에 자신을 괴롭히는 제러미 로스가 이사오면서 하루

하루가 힘들어진 주인공이 그와 다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이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가 은근히 왕따를 당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간다. 데릭 먼스 작품. 〈정글짐북스·1만원〉

▲탈무드 이야기=이스라엘 국민들의 고전으로 꼽히는 탈무드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 쓴 책으로 모두 5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별거벗은 임금님',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목숨을 구한 작은 선명'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이즐북스·1만5000원〉

## 어린이 책꽂이